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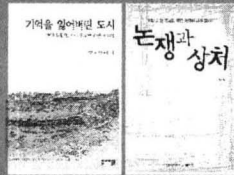
3월 '이달의 책' 후보도서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김진송 지음 | 세미콜론 | 312쪽 | 값 12,000원

여의도와 한강 개발의 열풍에 밀려 1968년 사라진 노랑진 강변 마을의 기억을 되짚은 소설과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1부 〈강변의 기억〉, 2부 〈기억의 재현, 혹은 조금 긴 후기〉를 통해 노랑진 강변 마을에서 보낸 유년시절을 회고하며, 거대 도시 서울이 형성되기까지 그 발자취에 가려진 자전적 의미를 들춰내고 있다.

《논쟁과 상처》 권성우 지음 | 숙명여대출판국 | 398쪽 | 값 15,000원

각종 문예지 등에 수록되며 그때마다 쟁론의 불씨를 당겼던 저자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3편의 평문이 실린 1부에선 문학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적 비평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2부에선 좀더 적극적이며 가열찬 확신이 깃든 글이 읽는 이들의 지적 충동을 부추기는가 하면, 3부에선 4편의 에세이를 통해 비평과 논쟁의 가치를 차분히 되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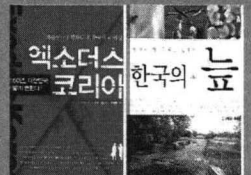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지음 | 집사재 | 365쪽 | 값 15,000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 책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비관적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미래를 예단하고 있다. 가히 탈출이라고 할 만큼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부류가 많음을 의제하며, 이를 막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일면적 모순을 들어 지나치게 염세적인 예단을 가한다는 비판도 살 만한 책이다.

《한국의 눈》 강병국 최중수 지음 | 자성사 | 208쪽 | 값 15,000원

책은 습지야말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생터임을 선언하며, 연일 습지가 파괴되고 없어져만 가는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온아들은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일일이 답사하고, 그 생태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사웃》 손문상 외 지음 | 창비 | 224쪽 | 값 9,500원

오영진, 손문상 등 8명의 민화가들의 키편 모음집. 못배우고 소외된 계층과 비정규직,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매섭게 꼬집는 대목이 줄곧 인상적이다. 제목 '사이사웃'이 뜻하듯,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책이다.

《옛 인형일기》 안수현 지음 | 한길아트 | 310쪽 | 값 17,000원

오래 세월 우리 고유의 정취가 깃든 인형을 만들어온 저자가 전해주는 인형이야기. 전통적 정서가 어린 300여 점의 인형으로부터 옛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풍속,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모두 67지 주제로 나누어진 인형 작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곁들이며 일기하듯 설명한 작품집이다.



《문장》 최인호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194쪽 | 값 8,500원

오래 문학적 연륜과 그것에 걸맞는 통찰위에서 자신과 세상과 미래,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담담히 술화한 책. 깊은 사색의 결과 얻어낸 작가 자신의 지적 성찰과 동서양의 고전과 지식이 이입되고 치환되며 삶과 세상에 대한 보편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모처럼 심리의 것들을 차분하게 관조, 응시하게 하는 서문로 손색없다.



《어디 편들 꽃이 아니라》 공선옥 외 지음 | 현실문화연구 | 238쪽 | 값 23,000원

코리아드림을 좇아 온갖 고통과 멸시를 이겨내는 외국인노동자, 동남아 출신 국제 결혼 여성들, 척박한 농촌현실에서 우는 농민. 그럼에도 그들은 남과 다르고, 못났다. 이유로 온갖 차별과 편견의 시선에 노출돼 있다. 10명의 사진작가가 꾸민 이 사진집은 노동현장과 격리시설, 산간벽지, 농어촌 등을 소재로 할량 미달인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고발하고 있다.

《전쟁과 인문학》 진순애 지음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352쪽 | 값 14,000원

인문학적 지평에서 전쟁의 함의를 깨는 등 독보적인 저술 태도를 보인 책이다. 〈전쟁과 인문학의 정치성〉, 〈북한 문학과 미학의 정치성〉, 〈전쟁과 해체미학의 정치성〉, 〈1960년대 시학의 실천적 지평〉, 〈김지하 시의 카타르시스 지평〉, 〈1980년대 해체시의 실천적 지평〉의 대목에서 보듯, 동서고금을 아우른 철학과 역사, 문학을 섭렵하며 전쟁과 인문학의 상관적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